

사설

천성산 훼손하는 정책은 허울

천성산을 지키려는 지출스님의 단식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20일을 넘겼다. 지출스님은 지난날 38일간의 단식과 부산시청에서 천성산까지의 3보1배, 3천배 정진을 해왔다.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동참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천성산 계곡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교사, 교수, 불교인들의 천성산 관동 저지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개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자연의 경계에는 귀를 막고 있다. 심지어는 현대의 발달된 기술로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며, 천성산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자료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뒷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참여와 정책은 허울뿐 아닌가.

산을 지키려는, 산에 사는 생명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 한 수행자의 몸짓이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을 인간의 부속물쯤으로 여겼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양 함부로 대했다.

무형문화재제도 개선을 주목하자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제도와 운영 관리를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재청이 꾸린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가 10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데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10월 17일 막을 내린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의 개선 의욕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수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제도는 당국의 분명한 의지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들을 선정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 불교계도 이번 기회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서 안 된다. 기존의 지정 분야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주장해야 한다. 영산재의 경우 지정 분야의 세분화를 통한 원형 보존의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 전통 문화 가운데 무형문화재의 새 장으로 편성되어야 할 분야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과 태고종 등 범종단적인 공동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문화계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운영체계는 물론 전승 종목의 세분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해 왔다. 전통문화는 원형을 최대한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불어 넣어 발전시킬 때 생명을 얻는다. 무형문화재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기초가 심각히 흔들릴

조계종 호계원 위상 강화 '시동'

3기 체제 출범...관련법·규칙등 정비키로

종결·대원·혜담·세영스님 특별위원회 선출

사법부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계원이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호계원법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기능강화에 나섰다. 이는 호계원의 위상과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켰다. 3기 체제 출범은 조심 호계위원 7명중 6명이, 재심 호계위원 9명 중 5명이 임기만료로 바뀔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호계원은 10월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조심·재심 합동회의를 갖고 3기 체제를 출범

시켰다. 3기 체제 출범은 조심 호계위원 7명중 6명이, 재심 호계위원 9명 중 5명이 임기만료로 바뀔 데 따른 것이다. 호계원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종결·대원·혜담·세영 스님을 호계원법 검토 특별위원으로 선출하고 호계원법을 포함한 호계원 규칙 등 정비에 필요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호계원이 호계원법을 검토하겠

다고 나선 것은 포괄적인 규정만 명시돼 있는 현행 호계원법으로는 법적용의 기준이나 행평성에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3기 출범을 계기로 법적용의 세부적 기준 마련을 통해 호계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호계원은 95년 3권 분립 체제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출범했으나, 총무원 집행부(행정부)나 종회(입법부)와 비교해 그 기능과 권능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주된 이유는 호계위원을 종회하

서 선출하다보니 전문성보다는 종회 내 계파 간 안배가 우선시되면서 독자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행정심판 등 종도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스스로 기능을 축소시켜온 것도 한 이유다.

한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한 법규위원은 "호계원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호계위원을 선출하

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심판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법적용을 공정하게 해야만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특별위원들이 제반 사항에 대해 연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호계원이 3권 분립 취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호계원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해 종도들이 믿고 기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심호계원은 이날 제37차 회의를 열고 3기 조심호계원장에 종결스님(2기 조심호계원장)을 재선출했다. 또 호법부가 승려법원위원으로 제소한 분은사, 김월암, 범어사 건에 대해서는 신리 연기 및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간화선 수행체계 정립 본격화

조계종 수행지침서 내년말 발간

간화선 수행체계 정립작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과 수행체계추진위원회(위원장 혜국·제주 남국선원장)는 지난 10월 22-23일 법주사 선원에서 '가칭' 조계종 수행지침서' 발간을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계종 수행체계실무위원회(위원장 오창·불학연구소장)가 제출한 총 100여 문항의 간화선 수행체계 질문지를 잠정 확정했다.

부이후 단계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편집위원회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3수행법과 관련, 간화선 수행과 사찰생활의 규범, 간화선과 제반수행법과의 관계 등 별도의 질문 항목을 삽입했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선별 수좌, 선학 전공 학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에 들어가며, 빠르면 내년 말에 '조계종 수행 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정리된 질문지는 △기초단계(간화선의 일반 사항), 간화선 수행을 위한 기초 교육) △심심단계(회두 참구 등의 정진단계, 삼매단계, 점검과 인가, 깨달음을 위한 단계) △깨달음(공

한편 편집위원회에는 불화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 축서사 조실 무어, 법주사 선원장 함주, 양평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등 4명의 주요 편집위원과 간사 설우, 강설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홍선스님 서류미비 해당 범어사주지후보 불인정

조계종 중앙선거관위원회는 10월3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107차 회의를 열고 범어사 주지 단일후보로 나선 홍선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벌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 호적을 제출해야 하는 선관위 법상 서류미비에 해당된다며 주지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

본사사령 이준엽 총무원 총무부 부장대우 (광주주재) 및 호남지사장 2003년 11월 3일

"대불련지원 신경쓰겠다" 범장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스님은 본지 445호 2면 '대불련 거리 나왔을 위기' 기사내용과 관련 10월 27일 대학생불교연맹회 박준찬 회장 및 강지혜 서울지부장, 홍지연 지도위원을 총무원장실로 불러 "학생들로 구성된 대불련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대불련 지원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사서실장 정학스님은 이어 포교부장 일관스님과 논의를 해 대불련 사무실 임대료를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교원은 10월 28일 대불련 임원들을 만나 종회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임대료 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김은경 기자

김태복장군, 현역육군소장 복직

국방부, 10월27일자로 제적처분 취소명령

군복사 시주금이 뇌물로 둔갑돼 지난 2월 군에서 제적된 김태복 장군이 현역육군소장으로 복직했다. 육군본부는 10월 27일 국방부의 제적처분취소명령에 따라 김 장군을 현역육군소장에 복직시킨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육군의 이 같은 결정은 9월 25일자 헌법재판소의 선거유예 군공무원 당선 퇴직규정의 위헌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한 보충역 편입의 불명예를 씻고 현역육군소장으로 복직해 예비용 또는 만기전역의 명예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뢰 혐의에 관한 재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받게 된다. 김 장군은 "무보직으로 3개월 근무한 후 전역 하는 것과 6개월 정도 한직이라도 보직을 받았다가 전역 할 것인지에 대해 육군 인사 실무자와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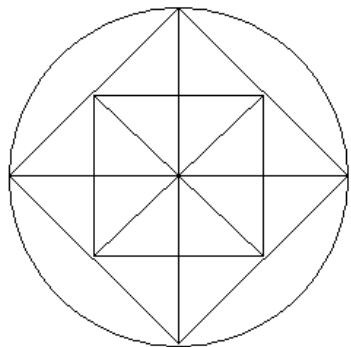
이에 따라 김 장군은 제적으로

이동혁 기자



『불교사회사상 토론폰광장』

“혼돈과 해체의 시대, 정(바름:正)·쟁(다툼:靜)·화(조화:和)의 의미”



▶일시: 2003년 11월 7일(금) 오후 1:45 ~ 5시
▶장소: 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주관: 大佛聯 총동문회 및 『불교 지식인연대』 모임
■주최: 불교방송(BBS)

▶문의처
TEL : (02)705-5201 ~ 2(BBS불교방송)
E-mail : ses@bbsfm.co.kr

일정 및 순서

오후 1:30 등록 (p.m.)
1:45 인사말씀: 성기태 총주재 총장(大佛聯 총동문회장) 토론폰광장 진행 사회: 김 규 칠(방송연론인)

제1부 토론폰광장

2:00 발제 1 : 『포스트모던 사회와 불교사상』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사회학 교수)

2:30 발제 2 : 『한국사회와 화쟁(和諍)사상의 현대적 조명』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 교수)

제2부 토론폰광장

3:00 토론
토론자 : 이한구 성균관대학교 철학 교수
박세일 서울대학교 법경제학 교수
박광서 불교계가연대 상임대표
양형진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
김중욱 동국대학교 불교철학 연구교수

4:30 질의응답
5:00 토론 마무리

초청의 말씀

탈근대(脫近代)와 근대와 전근대의 혼합, 그리고 동(東)과 서(西)의 동거속에서 이른바 '혼돈과 해체'의 시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한 채 정사(正·邪)를 구별하기 어렵고, 날로 번지는 다툼과 평가름에 삶은 피곤과 환멸에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법과 자비를 생명처럼 여기는 불교계 사회인들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여 얻힌 것은 풀이하며, 사회의 여러 요소들 사이에 역동적 좌표설정과 관계정립을 통하여 큰 기운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내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한 책임의 일단을 실천하는 일로서 우리는 『사회사상 토론폰광장』을 엽니다. 현대 한국사회의 맥락속에서 가능한 한 바른 길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툼과 평가름에도 원칙과 질서를 회복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절과 조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1일

토론폰광장 공동초청인

강신철	박세일	성태용	이용부
김광삼	박준영	심재룡	이한구
김규칠	배금자	양형진	진민자
명호근	서윤길	이각범	채태형
박광서	성기태	이수덕	황진호 (가나다順)